

광주시 의지, 5·18 진실규명 불씨 살렸다

헬기사격·발포명령자 밝히기
옛 도청 복원 지원 등 노력
첫 UN세미나 오월정신 세계화
윤 시장 진두지휘 정부도 화답

2017년 5월은 1980년 5월18일 이후 시작된 5·18 진실규명과 오월정신의 세계화가 어느 때 보다 빛을 발한 해였다.

5·18민중항쟁 37주년이 되는 올해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제대로 규명돼야 한다”는 윤장현 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항쟁 전반에 대한 재조명 작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발포명령자, 헬기사격, 행불자 문제 등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규명은 물론 당시의 역사적인 현장 보존, 정신계승에 전방위로 나섰다.

결국 몇몇 중요한 실체적 진실을 찾아냈고, 광주의 작업을 정부가 나서서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이끌어냈으며, 평화와 인권의 상징인 UN본부에서 항쟁의 가치를 세계인들과 공유하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키는 등 올 5월은 또 다른 ‘항쟁의 기간’이었다.

◇전남도청 원형복원과 헬기사격 규명=5월의 부활은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운동과 전일빌딩 탄흔 발견에서 촉발됐다. 여기에 광주시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 추진이 맞물리면서 큰 동력을 확보했다.

◇전남도청 원형복원에는 윤장현 시장이 직접 뛰어들었다. 윤 시장은 지난해 9월30일 발족한 ‘옛 전남도청 복원 범시민대책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며 복원 운동에 시동을 걸었다. 이후 시청 내에 ‘옛 전남도청 복원 지원팀’을 발족시켜 후속 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전일빌딩 리모델링 과정에서 탄흔이 발견됐다. 광주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해 헬기사격에 의한 탄흔이 유력하다는 검증결과를 받았다. 무고한 시민에게 헬기에서 무차별 난사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시는 본격적인 진실규명을 위해 지난 2월 5·18진실규명지원단을 출범시키고 이 분야 전문관도 위촉했다.

윤 시장은 “5·18 진실규명을 통해 미완의 역사를 온전히 기록해 나가는 일은 이제 우리의 소망이 됐다”면서 “5·18단체, 5·18 역사왜곡대책위, 5·18재단 등과 함께 진실규명사업이 정부의 중요 의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독려했다.

지난달에는 80년 당시 미국 정부의 주요 기밀문서를 광주시에 기증한 미국 언론인 팀 셔록을 광주로 초청해 자료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또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윤 시장이 직접 문재현 대통령을 비롯한 각 정당의 유



윤장현 광주시장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5·18기념 국제학술회에 참석해 패널 토론에 앞서 축사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력 후보들을 헬기사격에 의한 총탄 흔적이 발견된 전일빌딩 현장으로 안내해 탄흔을 직접 보여주고 설명함으로써 5·18 진실규명에 대한 후보들의 관심과 의지를 이끌어내는 데도 주력했다.

◇1980년 5월과 2017년 5월=5·18 미완의 과제를 해결하려는 광주시의 노력은 37주년을 맞은 올해 가시적인 효과를 거뒀다.

▲5월18일=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재현 대통령은 광주의 노력과 의지에 화답했다.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고 진실규명, 옛 전남도청 복원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밝혀 5월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단초를 마련했다.

▲5월21일=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계엄군을 시민의 힘으로 몰아냈던 그날을 ‘시민의 날’로 기념해온 광주시는 이날 시민참여 직접민주주의의 시작을 대내외에 알렸다. ‘금남로 시민정치 페스티벌’에 2만여명의 시민이 함께하며 광주공동체의 지력을 과시했다. 또 광주시민총회를 열어 마을과 학교, 직장 단위로 조직된 100개의 민회가 제안한 정책과 조례 중 10개를 시민들의 뜻에 따라 채택했다. 정책개발도 시민이 직접 한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졌다.

▲5월24일=“미국이 신군부의 만행을 묵인·방조했다”는 체코파일 속의 진실이 드러났다. 미국 언론인 ‘팀 셔록’은 이날 ‘1979~80년 미국 정부 기밀문서 연구 결과 설명회’를 갖고 “당시 신군부가 미국 쪽에 터무니없는 거짓 정보를 흘려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려 했으며, 미국은 ‘반미 감정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등 5·18 진행 상황을 환히 알고 있었지만 묵인·방조했다”고 밝혔다.

▲5월27일=80년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에 재진입했던 날. 그로부터 37년이 지난 2017년 5월27일(한국시간) UN본부에서는 광주정신을 인류 보편적 가치로 계승하기 위한 의미있는 연대가 시작됐다. 평화와 인권의 상징인 UN본부에서 5·18기념 국제학술회가 열린 것이다.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며 5·18항쟁과 광주의 시대적 역할을 되새겼다.

더불어 그들은 “5·18이 세계 인권운동의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 광주의 역사는 인권을 존중받고 민주화를 이루고 싶은 모든 사람들의 모델이 됐다”면서 “5·18은 광주만의 아픔을 넘어 인류 보편적 가치인 민주·인권과 평화의 연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장현 시장은 “국가와 인종, 도시는 다르지만 광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이 순간이 매우 감격적이다”며 “5·18은 기념하고 기억할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살아 숨쉬고 있으며 연대와 통합의 미래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윤장현 광주시장이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국립5·18민주묘지에 찾아 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며 오월정신을 되새기고 있다.

수도·가스·통신·전기 시스템 통합 관리

광주시, 연말까지 구축

광주시는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가스, 통신, 전기 등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통합 관리한다.

광주시는 고도화사업을 통해 도로 및 상하수도 관리시스템(2005년),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2009), 인터넷 GIS시스템(2010년), 도시행정종합시스템(2010년) 등으로 분산 관리해 온 4개 시스템을 통·폐합해 포털형태의 ‘공간정보통합시스템’으로 올해 말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실시간 갱신되지 않는 가스, 통신, 전기 등 지하시설물 DB에 대해 국토교통부 표준 코드가 적용돼 국토

교통부의 최신 지하시설물 DB를 확보, 지하시설물의 노후, 파손, 사고 등에 신속히 대처하고 시민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기존 폐쇄망(C/S방식)으로 운영해오던 관리시스템은 사용자 접근이 제한적이었지만, 웹기반으로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서비스함으로써 사업부서 등에서 각종 개발과 인허가 업무 등에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철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용자의 편의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최신 기술을 적용해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영키고 낚은 공중선 20곳 정리

올해 광주지역 20곳, 4799주의 불량 공중선이 정비된다.

광주시는 학교 주변, 옛 시가지, 다중이용시설 주변의 불량 공중선을 정비하는 ‘2017년 공중선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시는 ‘공중선 정비사업’을 통해 여러 가닥의 통신선을 통합하고 폐선을 철거하는 등 전주 위에 난립된 전력·통신·방송케이블 등 공중선을 체계적으로 정비, 시민 생활안전을 지키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있다.

올해는 충장중학교, 광천파출소, 양동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 등 20개 구역의 전주·통신주 4799주, 327.7km를 정비한다. 사업비는 총 362억원으로 전액 사업자가 부담하며, 이는 6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광주시는 공중선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말 미래부의 2017년 공중선정비구역 실태조사 방침에 따라 자치구, 한전과 함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주민, 지자체, 사업자와 함께 지역별 공중선 정비협의회를 구성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산수시장, 양동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16개 구역에 사업비 209억원을 투입해 전력·통신주 3825주, 120.2km를 정비해 쾌적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남균 광주시 도로과장은 “공중선 정비사업은 지자체가 실태조사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한전과 통신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며 “사업 효과가 높은 사업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복지재단 ‘컨설턴트 과정’ 다음달 11일까지 모집

광주복지재단(대표 장현)은 지역복지계 인적자원의 컨설팅 역량 축적과 컨설팅 사업의 확장과 전파를 위한 전문교육인 ‘컨설턴트 양성과정’ 참여자를 다음달 11일까지 모집한다.

교육 참여자는 광주시 사회복지시설·단체·기관 소속의 사회복지종사자 중 ▲현장 사회복지시설 종사경력 7년 이상인 자 ▲중간관리자 이상의 직책 수행 경험이 있는 자 ▲강의 또는 교육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우대) ▲향후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의 협조가 가능한 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단이 올해 첫 시도하는 이번 과정은 ‘미션 및 비전 설계’에 대한 컨설팅 수행 능력 양성과정으로, 30시간의 기본과정

과 48시간의 심화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재단은 지난해와 올해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사업을 공동 수행한 한국감마센터와 이번 과정을 함께 하기로 했다.

신청서류는 광주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gjwf.kr)에서 다운받아 이메일(gjwf@daum.net)로 제출하면 되고, 전문가 심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6월 중에 참여자 10명을 최종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이들은 다음달 27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총 13회기의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정현 대표이사는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된 인재들이 사회적으로 지역복지계의 발전과 변화에 기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지리산 온천지구내 K호텔

깨끗하게 새단장 했습니다!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숙박문의 H. 010-3605-5000
061-783-8090



대형모텔 매매·동업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2평 건물 718평 지하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세미나실/객실 2~4층 - 객실
- 전체 리모델링, 6월10일 오픈예정
- 시세/감정가 - 17억
- 매매 - 14억 5천만원 (조정가능)
- 동업 - 협의 (경험자우대)
- 용자 8억 포함, 법인체 인수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